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③

서로 지극히 사랑해 한 몸으로 태어나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아미타구품화생도(1841)'의 좌비(左比翼).

국어사전에서 비익조(比翼鳥)를 찾아보면 '1.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아니하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새. 능비익(比翼). 2. 남녀나 부부 사이의 두터운 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돼 있다.

사전상으로 봤을 때 비익조는 눈이 하나 밖에 없는 동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익조는 눈이 2개인 동물이다.

비익조는 노래, 영화 등 문학·예술작품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눈물이 눈물을 자꾸 훔쳐 내도 슬픔이 슬픔을 함꼐 두 떠 밀어내봐도 하나의 눈과 반쪽 날개론 날 수도 없는 가슴앓이 새처럼..."

남성그룹 SG워너비가 부른 '비익조'라는 제목의 노래에서도 비익조를 눈이 하나인 동물로 보고 있다.

홍콩에서 제작된 세계적인 영화시리즈 '천장지구'는 당나라 시인 백낙천 선생이 쓴 '장한가(長恨歌)'라는 시집에 나오는 글귀다. 이 시에서도 비익조가 나온다.

이쯤 되면 비익조라는 동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진다. 그러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비익조의 원형이 나온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사실 비익조는 극락세계 서방 아미타불 부처님 현전에 사는 새이다. 이러한 비익조가 1648년 순조 26년 순천 송광사에서 만든 <불설아미타경>에 나온다.

<불설아미타경>의 편지 형식은 만화책처럼 한 페이지를 상하로 나누어 위쪽은 도판 변상도로, 아래쪽은 <아미타경>의 원문으로 구성했다. 이 <불설아미타경>은 불교를 모르고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보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판본형태다. 이 경전에서 비

익조는 분명히 눈이 2개인 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에는 염불암이라는 산내 암자가 있다. 1841년 염불암에서 지금은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아미타구품화생도'라는 탱화가 제작됐다.

이 탱화는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의 연지(蓮池)에서 구품의 단계에 따라 화생하는 천인중생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탱화 상단에는 관음세지양대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이 좌정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머리 좌·우에는 공작새와 비익조가 공중을 나르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비익조 역시 두 눈을 각각 아름답게 뜨고 극락세계에 화생(化生)하는 천인(天人)들을 바라다보고 있다.

탱화의 비익조를 보면 서로 지극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내생에 태어나서도 함께 살기를 꿈꿔 몸을 불편한 요철처럼 붙어 환생해 함께 사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어찌했든 간에, 비익조는 지극한 사랑이나 우정을 몸으로 대변하는 너무나 낭만적인, 세대를 초월한 사랑의 상징이다. 비익조가 왜 극락세계

에서만 살아 존재하는가는 지금도 의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극락세계가 되면, 비익조를 볼 수 있

을지도 모르겠다.

백낙천 선생의 '장한가'는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극화해서 쓴 시이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절절한 아름다움 때문에 자주 읽곤 한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연(聯)을 읊으며 글을 맺고자 한다.

七月七日長生殿(칠월칠석장생전) 어느 해 칠월칠석 장생전에서/
夜半無人私語時(야반무인사어시)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나는 우리들의 은밀한 이야기/
在天願作比翼鳥(재천원작비익조) 내생에 천상에 태어난다면 비익조가 되고/
在地願為連理枝(재지원위연리지) 땅에 태어나면 연리지가 되자 했네/
天長地久有時盡(천장지유유시진) 하늘은 멀고, 땅은 오래도 마침내 다 무너질 날이 있을지 언정/
此恨綿綿無絕期(차한면면무절기) 차한 면면무절기) 우리의 못 다한 이 한은 면면이 이어져 다할 날이 없으리라'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 부처님오신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오셔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길 위에 있는 길 알아보신 부처님. 우리 모두가 당신과 같다고 하셨으나 2천년이 넘도록 부처님처럼 사는 이를 볼 수가 없다. 그 많은 경전을 읽고 그 많은 도량을 지었어도 세상은 아직도 어수선하기만

하다. 조석으로 종을 치고 북을 울려도 지옥은 늘 지옥이다.

절마다, 길마다 연등이 걸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또 다가온다. 어느 해 이맘 때 수덕사 마당을 걸었던 적이 있다. 절 마당에 걸린 연등이 봄바람에 나부끼고 있었

다. 오후의 햇살이 짙어 가고 700년 묵은 법당 안에는 행자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도 부처님 다녀가셔서 이 세상이 이만하지 않았다. 부처님 그리운 이 시절, 오늘도 절 마당에 연등을 매달고 다시 한 번 서원한다. 부처님처럼 살 수 있기를.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8 조선 벽송지엄 전사의 <증옥륜선덕(贈玉崙禪德)>

달는 곳마다 모두 공이다

雪髮春風面 (설발춘풍면)
逍遙山市中 (소요산시중)
無窮聲與色 (무궁성여색)
觸處自空空 (촉처자공공)

흰 머리 봄바람의 얼굴로
산중과 시장에서 자유로이 노니네.
다함없는 소리와 색
달는 곳 마다 절로 공할 뿐이구나.

조선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 스님은 전장에서 남다른 공을 세운 후 대장부로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헛된 명예에 매달리는 자신을 탄식하고 나서 출가했다. 이후 <대혜어록(大慧語錄)> 가운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는 것에 의심을 두어 깨웠다.

스님은 한 개 식사와 한 벌 누더기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살았으며 온갖 것이 여래의 실상으로

서 참과 거짓, 이름이나 모습 등을 끊어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일미선(一味禪)이라 했다.

이 시는 선의 이치에 깊이 통달하고 그 덕이 못 대중에 미치지 선덕인 옥륜 스님의 수행의 경지를 읊은 것이기도 하겠고 지엄 스님 자신이 체득한 법의 실상을 옥륜 스님에게 드러내 보여 준 것이기도 하겠다. 스님은 감각기관과 대상이 다 실제 없는 공한 법의 실상을 비유와 범으로써 읊었다. 1구는

늪음을 눈같이 흰 머리로, 생동하는 젊음은 봄바람 같은 얼굴에 비유해 색으로써 시간을 보여 주었다. 2구는 산중으로 표현되는 고요함과 시장으로 비유되는 시끄러움을 통해 공간을 통해 소리를 드러내었다. 3구에서는 앞의 비유를 성색으로, 마지막 구는 법의 실체인 공을 드러냈다. 늪음과 젊음,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대치되는 시·공간에서 스님은 자유롭게 노닌다. 달는 곳마다 모두 절로 공이기 때문이다. "자공공(自空空)"을 통해 소요하는 것이 바로 일미선(一味禪)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이 설하신 오온과 12처가 공·무상·무아임을 여실지언 한다면 우리도 바쁜 일상에서 경계에 반연하지 않고 소요 자재할 수 있을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고탐 한 밤을 건너는 어린 풀빛의 이 봄에 말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디자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